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11시 40분

돈키호테를 보고나서(최예나)

2015.08.23 조회수 111 등록자 최창래

처음보는 발레공연으로 가슴이 설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신기하고 새로웠다.

키트리와 바질이 무대에 나와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을 보니 나도 발레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특히 키트리의 춤이 제일 신기했다.

앞 발가락으로 서서 걸어다니고, 빙글빙글 돌고, 점프를 해서다.

다른사람들도 춤을 멋지게 춰지만 키트리의 춤이 제일 신기하였다.

그래서 나도 꼭 한번은 발레를 해보고 싶었다.

키트리는 다리뺏기도 잘했다.

- 9살 최예나.

글쓰기

목록

이전글
돈키호테를 보고나서(목포꿈다락 최예나, 최예진)

다음글
연극반 후기(최예나)

MokPo - Si
Web Contents

